

제목	중국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식량 해상운송로 개통		
출처	• 中国食品安全报( <a href="http://www.paper.cfan.cn">www.paper.cfan.cn</a> )	게재일	2016. 1. 7

- 길림성 훈춘시 항무국에 따르면, 2015년도에 600톤의 식량이 훈춘시를 경유하여 바다를 통해 상해시로 운송됨
  - 이는 북부지역 식량의 남부지역 운송 경로가 기존의 철로운송, 철로·육로와 해상로 결합 운송 이외에 세 번째 운송경로로 해상운송로가 추가되었음을 의미
  - 현재 중국 북부지역 식량의 남부지역으로의 운송은 대부분 철로운송과 ‘철도+해상로 또는 육로+해상로 결합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함. 결합 운송은 철로 혹은 육로를 통하여 요녕성 발어권(鲅鱼圈) 지역이나 영구항(营口港)으로 옮겨진 후 다시 해상을 통해 상해로 운송되는 시스템임.
  - 길림성 식량국 조정처 왕수(王涛) 처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길림성 훈춘을 통한 식량의 해상운송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언급함.
  
-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15년 식량생산량은 6억 2,143.5만 톤이며, 이 중 1억 4,800.5만 톤이 흑룡강성, 길림성, 요녕성, 내몽고자치구에서 생산되었음.
  - 현재 중국에서 식량 초과공급으로 식량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지역은 5개 성에 불과한데 이 중 3개 성이 동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. 이 중 길림성은 식량 상품화율과 1인당 식량보유량이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함.
  
- 훈춘시는 중국, 러시아, 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, 바다에 인접한 내륙도시이며 북한의 나진항과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등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
  - 이런 점 때문에 "借港出海(차항출해), 内贸外运(내무외운)" 등의 개념이 지역물류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였음. 2010년에는 内贸外运(내무외운)를 통한 화물 운송이 석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, 작년부터는 이 운송로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항목이 식량, 목재, 광석가루 등으로 확대 되었음.